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자광 스님 선출

10월 10일 원로회의 만장일치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앞서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자광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적의원 21명 중 16명이 출석해 자광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내년 예산' 다룰 중앙종회 11월 5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 11월 5~19일 제217회 정기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5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7회 정기회를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맞춰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개원은 11월 5일 오전 10시며, 안건접수는 10월 29일, 종책질의는 10월 31일 마감한다.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지난 회기서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 설치 관련 종헌개정안과 연동법 개정안, 종헌종법특위가 성안한 징계법 제정안과 교육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개정안,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을 비롯해 재심호계위원 · 초심호계원장 · 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 선출 등 인사안이 다뤄진다. 아울러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 후보자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불기 256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불기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등도 정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달력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소

㈜도반HC "종단 해명 노력에도 허위사실 유포"

불교계 일부 시민단체들이 2012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에 대한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횡령을 주장하며 조계종 출판사 前대표이사 자승 스님과 前사장 김모 씨를 고발한 가운데, 사업 당사자인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도반HC(사장 주혜)는 10월 8일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한국불자언론인회(대표 김영국)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도반HC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달력 제작과 관련한 두 건의 계약서 및 배포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위 불교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며 "불교계 일부 단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발 행위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과 과도한 주장임을 깨닫고 참회와 자숙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도반HC는 이어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는커녕 재차 기자회견을 개최해 황당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도반HC는 현재 확인 ·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임을 밝혀냄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승가교육기관 개편 추진하겠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8일 취임 기자간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교육 내실화가 우선 과제
내용 정비 · 기관 조정 계획 중
'수행정신 회복' 교육 방향으로
출가 진흥, 종단적 고민 필요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사진>이 승가교육 내실화를 우선 과제로 교육 개혁 불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앞선 현응 스님 체제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승가교육기관 개편 추진 의사도 시사했다.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취임 3주 만에 10월 8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승가교육 종책 방향을 개괄적으로 발표했다. 스님은 앞선 6~7대 교육원 집행부가 10년간 진행했던 '승가교육 개혁불사'에 대해 "승가교육 변화의 틀을 잡았지만, 질이나 양적인 면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며 "'승가교육 내실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 승가교육 내용과 기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우 스님이 시사한대로 승가교육기관 정비는 현재 종단 승가교육 종책 분야에서 최대 현안이다. 현재 불교계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다. 한 해 출가인원이 120명 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조계종은 현재 사찰승가대학과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17곳의 사미 ·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적정 교육 정원을 채우는 기관은 많지 않다. 앞선 6~7대 교육원 집행부에서 기관 수 조정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본사 · 교육기관 등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진우 스님은 복잡하게 얽힌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설득하며 풀어보겠다고 했다. 스님은 "출가자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 조정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기관을 조정할 생각은 없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교육기관 조정을 이루겠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추구하고자 하는 승가교육 종책 방향도 제시했다. 스님은 수행자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불(成佛)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이유도 부처가 될 것을 권선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했다. 제대로 수행하고 전법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승가는 '수행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승가교육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사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 승가대학 · 승가대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고시위원회,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스님들을 만나 승가교육 관련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수행정신 회복'을 바탕으로 한 승가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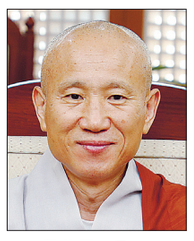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6~7대 교육원에서 시행해오던 학인경연대회 등 대중과 소통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출가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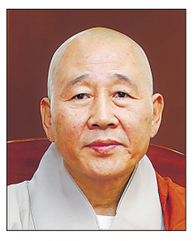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현행 출가 연령이 평균 40대다.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할 시기가 되면 적지 않은 나이가 된다. 젊고 뛰어난 인재가 출가하는 문화를 종단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출가자가 수행 정진하는 데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종단 승려복지와 수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원도 관련 제도 정비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장 등 일부 인사 단행

재무부장 탄하 · 특보단장 혜일
신문사장 정호 · 문화특보 현법


재무부장 탄하 스님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


불교신문사장 정호 스님


문화특보 현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새 재무부장에 탄하 스님이 임명됐다. 4년간 활동한 전임 재무부장 유승 스님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재무부장 탄하 스님을 비롯해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 불교신문사장 정호 스님, 문화특별보좌관 현법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어떤 소임이든 어렵고 힘들기 마련임에도 흔쾌히 수락해줘 고맙다"며 "종단이 더욱 발전해야 할 시기다. 스님들께서 공선후사(公先後事)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1988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모선암 · 운람사 ·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공생회에서 수년간 케냐지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해외구호활동에 앞장섰다.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백련사 · 연화사 · 흥천사 주지 및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자성과괘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원에 이어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신문사장 정호 스님은 도명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다. 채운암 · 대각사 주지 및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오산 대각사 회주를 맡고 있다.

문화특보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개태사 · 보승사 주지를 비롯해 제13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김포 용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현법 스님은 이날 전임 문화부장 소임(2018년 9월~2019년 7월)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총무원장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4년간 재무부장 소임을 맡은 유승 스님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방장 추대' 조계총림 산중총회 재소집한다

절차상 하자 지적 받아들여 논란 없애려 11월 1일 개최

새 방장후보로 현봉 스님을 추대한 조계총림 송광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산중총회를 재소집한다.

송광사(주지 진화)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경내 자제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방장후보자를 재추대키로 했다. 이는 앞서 임회를 거쳐 현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후보에 추대했지만 일부 스님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종회와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송광사는 10월 7일 긴급 임회를 열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산중총회를 재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총림은 방장후보를 1일 산중총회서 다시 추대하고, 이 결과를 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에 방장 추대의 건으로 안건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